

연중 제 7 주일 가해

화답송

시편 103(102), 1-2. 3-4. 8과 10. 12-13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.

1.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. 내 안의 모든 것도, 거룩하신 그이름 찬미 하여라.
 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,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.
 3.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,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.
 4. 해 뜨는 데서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.
 해지는 데가 먼 것 처럼,

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.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.
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,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
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,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.
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 하듯, 주님은 당신을 가여워 하시네.
 경외하는 이

알렐루야

(후렴)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- 야

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,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.